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3호 【루게 제24736호】 주제 103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
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서홍찬동
지, 윤동현동지, 리병철
동지, 박정천동지, 김양
건동지, 오일정동지, 한
광상동지, 박명철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
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수산사업
소의 일군들이 맞이 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해 12월 조선인민군 수
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
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
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인
민군대의 모든 수산부문들에서 언제나
선창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고 포구마
다에서는 만선의 배고통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기대
와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
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
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 올해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
과를 이룩하고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가
전군적으로 제일 앞장에서 나가고
있다.



장군님의 만고공상이
가슴에 마쳐온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
산, 황금벌로 전변시키
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철저히 관철하는것
과 함께 사회주의조국
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드
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올해는 황
금해의 역사가 시작된 해
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
역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선기
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
선 《단풍2-04》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창
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
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

고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같
은 어황조건에서도 사회의 수산사업소
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것은 배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하며 당정책을 말로
만 외우는 사회의 일부 단위들과는 달
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
어가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
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
하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
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시오 온 나라
에 수산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시기
위하여 현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
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
소 책임일군들에게 전례없는 물고기대
풍을 이룩하고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가
전군적으로 제일 앞장에서 나가고
있다.

고, 년간에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
린다고 하시며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포구엔 만선의 배고통소리 선창엔 물
고기 가득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
대안의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요즘은 잠도 오지 않는다고, 자신께서
이렇게 기쁘게 자식들을 조국보위초
소에 내세운 부모들이 이렇듯 희한
한 물고기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구내에 물고기비린내가 짙
었다고, 이것은 우리 군인들에게 매일 물고
기를 떨지 않고 굶식시키고싶은
최고사령관과 마음도 뜻도 함께 하는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
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복장
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희한한 풍경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놓고보니 조국
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최전연부대들의 초소마다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군인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으시고 자신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랑동실과 절임창고를 돌아보시고 잡아온 물고기를 한마리도 허실없이 군인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애쓰고있는 종업원들의 수고를 치하시면서 보관과 저장을 잘해야 군인들에게 선도가 좋은 물고기를 보내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공장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당정책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을 비롯한 온 나라가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는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며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당의 사상을 어떻게 접수하고 당정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항상에서 수산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죽어나사나 수산을 추켜

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녀성들이 펼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의 종업원 평가하시였다. 어로공가족들이라는것을 아시고 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투철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 전형단위라고 하시면서 사회의 수산부문

3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선진적인 어로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서도 최첨단돌파전의 불길기 세차게 타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조건과 어기철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냄으로써 당이 제시한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리한 어황조건과 일기조건에서도 바다를 비우지 않고 백절불굴의 어로전투를 벌리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어로공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그들이 자기 초소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이어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원들이 당정책의 철저한 신봉자, 옹호자, 관철자들인 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대단히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교과서와도 같은 공연, 우리 로동계급의 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천길 바다속 진주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당이 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콧날, 마른날 가림없이 당에서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수산사업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시를 주시고 종업원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어로공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방침을 자자구구 학습시켜 그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일군들이 사무실에서만 맴돌지 말고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어로공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치위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로공들에게 로동보호물자들과 식량, 기초식품, 부식물, 땀감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는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예술소조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영광과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해마다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오으로써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당의 교육중시사상관철에서 발휘한 훌륭한 기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김득삼동무의 교육지원사업성과를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디다.

《모든 부분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을 제1로 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5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집행령형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잘한 성과를 가지고 서면토론을 제기한 일꾼이 있었다.

대의원과 유치원

주제 101(2012)년 9월 25일 김득삼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열광적인 박수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재래로 모임을 삼가 우려하는 김득삼동무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조국통일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순간의 체험자가 된 그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성스러운 부름을 다시금 심장속에 되새기며 보았다.

(인민을 대표하여 찬성의 손을 높이 올렸던 대의원단과 누구나보다 앞장에서 어느 때보다 더 헌신적으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때부터 김득삼동무는 교육사업을 대의원의 눈길로 새롭게 보고 대의원이 되었다. 지난해 7월 어느날 김득삼동무는 와우도구역 통수위원의 단총부속건물이 세한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가보니 교양원들이 어쩔바를 몰라하는 모습과 함께 낡은 유치원건물이 가파르게 인접하였다. 지금껏 대학과 학교들은 관심하면서 유치원에는 눈길을 돌리지 못한 자신이 죄스러웠다.

(유치원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첫 계단이 아닌가.)

김득삼동무는 유치원의 김혜순원장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내가 대의원을 맡고 있었습니까. 화가 배이 되게 유치원을 더 번듯하게 꾸립시다.》

유치원에 2층짜리 건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전투가 벌어졌다. 다리를 다친 불편한 몸이었지만 현장에 나와 살면서 건설을 지휘하는 김득삼동무를 바라보며 유치원 교양원들은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바람속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계속되어 짧은 기간에 번듯한 2층짜리 새 건물이 일떠섰다.

건물내외부미장을 끝내고 수직장문을 달아주는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 김득삼동무는 더 도와줄 것이 없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하여 계획에 없던 유치원후방 시설에 대한 개선추진과 마당공크리트 포장작업이 립체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새롭게 변모된 유치원에 들어서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하는 모습은 김득삼동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김득삼동무는 유치원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주민들이 자주 위우는 김득삼대의원과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올해 6월 어느날 와우도구역 서용유치원 앞을 지나던 김득삼동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당에 비둘이 많이 고인 탓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업고 유치원으로 들어서는데는 곤란했다. 원장을 만난 김득삼동무는 유치원이 수습건물에 지대가 낮은 곳에 건설되다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비물이 고이곤 하여 애로를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후 수습기의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유치원마당에 들어서던 김득삼동무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방심해도 우리가 부끄럽소. 애들이 깔짝 놀라게 유치원의 변모를 완전히 일신시켜주세요.》

넓은 지붕기와가 가깝고 산뜻한 색깔과 아이들 바깥고 유치원의 외벽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환하게 변모되어갔다.

유치원원판 앞마당에 고급석재를 붙이는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였다.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바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김득삼동무였다.

건설전투공업성야에 어느 한 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사임하고있는 그는 10여년 세월 남포시안의 교육기관을 성실성으로 도와주어 교육자들과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특히 그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 후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했던 인민의 대의원답게 그 어느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고있었다. 그의 지난 기간의 교육지원사업성과는 우리 일꾼들, 공화국의 국민들이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그가 바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김득삼동무였다.

《건설장생, 암만 봐도 현관으로 오르는 저 계단들이 좀 높아진것 같소.》

《다 완성해놓았는데...》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인데 애들에게 불편하다면 열변이라도 다시해야지. 아이들이 올라서기 편리하게 계단을 세개로 놓아 줍시다.》

작업은 다시 진행되었다. 부속살모양의 철강구조물공사할 때에도 김득삼동무는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철근사이의 너비차이를 발견하고 해체하여 다시 수정하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원장이 더 세심한 김득삼동무의 눈길에 모두들 혀를 찼다. 김득삼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마당에 화진그대의 종합체조대, 미끄럼대를 비롯한 12종의 운동기재들도 잘 만들어 설치해주고 색깔도 골라 해주었다.

마당공크리트포장이 한창 진행될 때 김득삼동무의 사색은 이미 다른 곳에 가있었다. 《물놀이장이 있어야겠구만요.》

그가 문득 하는 말에 유치원 원장 김영숙동무는 마치 자기가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이 얼굴이 붉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총속에 새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돌아보면서 원장이 제일 부러워한것이 바로 물놀이장이었던것이다. 유치원에 물놀이장이 없다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가곤 하여 부모들의 걱정, 교양원들의 걱정이 없지 않았다.

《물놀이장이 있어야겠구만요.》

원장이 부러워하던 물놀이장은 빠른 시일 안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넓은 부지면적에 새로 일떠선 물놀이장은 안팎으로 멋있었다. 지붕에 색채관기사와 엮은 물놀이장의 하얀 벽면에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형상한 동화그림이며 고급석재를 붙인 바닥과 멋진 타일을 붙인 수조는 나무랄데없이 훌륭하였다. 물놀이장을 하고 물놀이까지 설치되어 가물철에도 걱정없이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여름철이면 교양원들의 손이 이끌려 멀리 바다까지 가곤 하던 아이들이 유치원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

서용유치원의 새 모습은 가지가지의 일화들을 남겼다.

다른 지방에 갔다오던 이웃 주민들이 그 새 물라보게 달린 유치원때문에 길을 사갈때가 해서 주소를 다시 물었다는 이야기까지 물놀이장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을로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 인민들이 혀를 차며 아이를 환영했다가 낯이 아졌고 웃음꽃을 피우던 일...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던 어느날 저녁, 유치원을 찾은 김득삼동무는 교양원들에게 지붕이 새지 않는가 물어보자고 하였다. 유치원건물과 물놀이장의 지붕상태를 무척 걱정으로 살펴보고 콘크리트포장을 한 마당 한쪽으로 물이 쪽쪽 빠지는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김득삼동무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출렁이고있었다. 교양원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대학이나 학교에 비하면 유치원은 지붕도 낮고 마당도 작다. 교육문제를 논할 때면 후시될수록 이는 대상이다. 하지만 그 작은 유치원에 큰 자국을 남긴 김득삼대의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어린이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는데 김득삼동무는 대의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공로로 대의원이 되었다. 김득삼동무는 대의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공로로 대의원이 되었다. 김득삼동무는 대의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공로로 대의원이 되었다.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인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준은 진정된 이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득삼대인의 마음을 저는 탄복합니다. 오늘도 유치원을 바라보며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인민의 대의원이 드라 다라 하면서 그를 잊지 못합니다. ...》

의 마음을 터놓았다.

《신명고급중학교에서 증축공사때문에 안타까와하고있는데 우리가 허리를 더 잘라 땀 흘리고 학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김득삼동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초급당비서는 이렇게 응대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이 왜 지배인동지 혼자 일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식들을 가진 학부모들인데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도맡아 해주어야지요. 좁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두고 우리가 공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공장개선보수를 위해 마련하였던 많은 건설자재들을 실은 차들이 연방 학교마당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교직원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다.

김득삼동무는 모교의 교직원들에게도 뜨거운 정을 쏟아부었다.

지난 9월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 참가하게 된 김득삼동무는 사회주의교육대회가 발표된 9월 5일을 하루 앞두고 숙소에서 함께 있는 리팡인교장의 얼굴에 근심이 비친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부터 불안한 기분이 그 시각 학교의 교직원들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였다.

다음날 교장은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김득삼대인이 공장에 연락하여 교직원들을 위해 후방물자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는 것이었다.

《교감소, 지배인동무!》

교장의 인사에 김득삼동무는 어느때처럼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였다.

김득삼동무에게 있어서 모교는 신명고급중학교 하나가 아니었다. 시안의 많은 대학, 학교의 교육자들이 안타까운 문제가 제기되면 마치도 제일 믿음이 가는 제자를 찾는 모교의 옛 스승처럼 스스럼없이 그를 찾아온다. 스승모두를 김득삼동무는 자기를 배워준 스승처럼 대우하였고 그들의 학교를 정다운 모교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나섰다.

남포수산대학, 남포제1중학교, 와우도구역 남포고급중학교, 항구구역 건국고급중학교, 통강군 예원고급중학교, 옥도고급중학교, 남포시소년단야영소...

어떤 학교의 교직원들은 김득삼대인이 자기네 학교를 졸업한 제자라고 생각하고있는 정도이다. 김득삼동무의 모습에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모교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거울처럼 비추어보고있으며 시의 일꾼들은 누구나 다 본받아야 할 태도와 습성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친필을 다시금 새겨보곤 한다.

신명고급중학교증축공사장에서 우리와 만난 와우도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봉호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구원의 호수인 저도 김득삼대인처럼 교육사업을 위해 그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이끌타갈 애쓰지 못했습니다. 그도 한개 공장의 지배인이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뒤를 돌아보거나 타산은 헤아리지 않고 제일 중한 일로,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맡겼고나서군 하는 모습에 늘 머리가 숙여지곤 합니다.》

모교와 일꾼, 이 말에 깃든 의미는 은혜와 보답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조국애에 일꾼들의 의리와 망명의 세계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이런 일꾼이 지배인으로 사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은 소문난것은 웅대한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유익한, 애육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에게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며 영웅의 꿈을 키워주고계시는데 대의원, 영웅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자리를 차고 일어난 김득삼동무가 찾아간 곳은 남포시 온천초등학교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수십개의 교실들과 실험실, 복도들 비롯하여 학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보수할 통이 큰 계획을 세우고 어려운 전투를 벌이고있었다. 그러한 때 찾은 김득삼동무를 학원의 일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반겨맞아주었다. 이날 김득삼동무는 원장과 함께 오랜 시간 학원을 돌아보고 시급히 도와주어야 할 내용들을 토박토박 수첩에 적어나갔다.

《공정일도 바쁘시겠는데...》

김득삼동무의 수첩장에 빼곡이 들어찬 항목들을 미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원장이 하는 말이었다. 김득삼동무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이애들속에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되니까, 지배인이니 학원원장이기에 저기 동감, 영웅감들의 부모가 되어줍시다. 인아들의 정을 짐을 우리 원수님 바라시는 대로 꾸려줍시다.》

이때부터 그는 스스로 초등학교개교보수 전투를 담당한 일꾼이 되었다. 공장당조직도 종업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이제 이애들속에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되니까, 지배인이니 학원원장이기에 저기 동감, 영웅감들의 부모가 되어줍시다. 인아들의 정을 짐을 우리 원수님 바라시는 대로 꾸려줍시다.》

《이제 이애들속에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되니까, 지배인이니 학원원장이기에 저기 동감, 영웅감들의 부모가 되어줍시다. 인아들의 정을 짐을 우리 원수님 바라시는 대로 꾸려줍시다.》

《이제 이애들속에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되니까, 지배인이니 학원원장이기에 저기 동감, 영웅감들의 부모가 되어줍시다. 인아들의 정을 짐을 우리 원수님 바라시는 대로 꾸려줍시다.》

김득삼동무는 원아들의 정든 집인 학원에는 의정에도 제일 좋은것으로 칠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먼곳까지 가서 칠 좋은것으로 마련하여 실어다주었다.

원제인아 초등학교를 찾아갔던 김득삼동무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실은 차들이 학원 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을 보게 되었다. 학원의 교직원들이 눈물이 글썽하여 하는 말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라는것이였다.

김득삼동무의 눈앞에는 불현듯 지난 1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생산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재래로운 모습이 뜨겁게 떠올랐다. 그런데 벌써 물고기들이 학원 원아들에게 인거지고있다는것이였다. 깊이있는 생각을 하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김득삼동무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뻥뻥 뚫고 향하였다. 공장운영에 절실히 필요한 창고였지만 김득삼동무는 서슴없이 그 한 칸을 초등학교에 내어주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기술로 세계력기계를 뒤흔든 우리 나라 력기선수들 귀국

올해의 세계력기선수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기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금메달 1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쟁취하여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력기계를 뒤흔든 이룩한 우리 선수들의 쾌승은 지금 수많은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 보도계의 아낌없는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은 《9일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지금까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거둔 성과들중에서 가장 훌륭한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은 남자력기 56kg급, 62kg급에서 각각 2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쟁취하고 2중세력기선수, 세계선수권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적 력기강자들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려은희선수는 여자력기 69kg급에서 3개의 금메달을 받았으며 김은주선수도 여자력기 75kg급이 추겨올리기종목과 종합

영웅과 원아들

주제 99(2010)년 5월 당과 국가에서 본진임무수행에서 세운 김득삼동무의 특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공민들의 최고 영웅인 로력영웅칭호를 인거주었다. 이런 고귀한 영웅메달의 무거운 김득삼동무가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느끼게 된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다.

지난 6월 1일 평양에유학을 찾으시어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모습을 텔레비전화면을 통해 본 날이었다.

그날 원아들을 한눈에 안아주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김득삼동무의 귀전에 뜨겁게 메아리쳐왔다.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을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하라. ...

가슴이 부풀어오르던 말이었다. 과연 그 누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던 영웅감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당의 품에 안긴 원아들을 한눈에 빠진것은 이쪽의 메일을 떠매고나갈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여세를 키워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아니라,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더 잘 보관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실것이었다.

김득삼동무는 지나온 인생의 나날들을 되새겨보았다.

《나 역시 과연 영웅이 되리라고 상상조차 해보았는가?》

평범한 농장원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요람에 안겨 자라는 행복 어린 시절들,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서던 일, 제대후에는 보람찬 도농에서 청춘의 꿈을 키우고 공장장치의 불꽃은 교실에서 배우던 나날들이 감회 깊어 떠올랐다. 자기에게 지배인의 무거운

한정목이 울리는 가운데 멀차가 도착하자 군중들은 환호를 올리면서 력기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평양에서 김수혁 평양시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영춘체육상, 력기협회 위원장인 최영만인민봉사총국장, 판계부인 일꾼들, 체육인들이 선수들과 감독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선수들을 태운 차가 거리를 달리다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조국의 영예를 떨친것들을 축하해주었다.

승리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선수들과 감독들은 주체체육발전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도상을 우러러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이 이룩한 성과는 체육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

